

‘외국인력 공백’ 30~49인 사업장에 ‘특별연장근로’ 허용

노동부, 올 최대 60시간까지 가능
외국인력 부족 해소시 조기종료
근로자에 연속 11시간 휴식 의무화



한국 입국 대기 중인 외국인 노동자.

이달부터 코로나19 등의 사유로 외국인 노동자를 구하지 못 한 30~49인 영세사업장은 최대 60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해진다. 7월부터 50인 미만 기업에도 주52시간제가 적용되면서 외국인력마저 구하지 못한 영세 기업들이 인력난을 호소하자 정부가 후속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2개월 넘게 외국인 인력이 입국하지 못해 업무량이 폭증한 30~49인 사업장의 한해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한다고 4일 밝혔다. 이들 사업장은 주 52시간에 8시간을 추가해 총 60시간의 연장 근로가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특별연장근로를 올해 하

반기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외국인력 입국 지연이 해소될 경우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대상은 고용허가서를 받고 2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외국인 인력이 들어오지 않아 업무량이 늘어난 사업장들이다.

다만, 5~29인 사업장은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가 합의해 내년 말까지 8시간 추가 연장근로가 가능해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별연장근로는 돌발 상황, 업무량 폭증 등 특별한 경우 근로자 동의와 고

용노동부 장관 인가를 거쳐 1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이번 주52시간제 확대 시행으로 외국인 노동자 의존도가 높은 기업이 8시간 추가 연장근로가 불가능하고, 코로나19 등으로 외국인 입국이 늦어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 공백 우려를 고려한 조치라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해당 기업은 근로자 동의 등 요건을 갖춘 후 지방노동관서에 고용허가서와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서를 내면 된다.

다만, 특별연장근로를 적용하는 기업은 근로자에게 연속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고, 근로자 요청 시 건강검진을 하는 등 건강 보호 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이들 기업은 또, 특별연장근로 외에 탄력근로제, 재량근로제, 사업장 밖 간주근로제 등 다양한 유연근로제를 활용

할 수 있다.

정부는 특별연장근로를 ‘재난이나 사고 수습’ 경우에만 인정해 왔다. 지난해 1월 31일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인명 보호·안전 확보 ▲기계 고장 등 돌발상황 ▲업무량 폭증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등의 경우에도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해졌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수는 지난 2019년 908건에서 지난해 4156건으로 대폭 늘었고, 올해 5월 말까지 총 2282건이 인가를 받았다.

아울러, 정부는 주 52시간제가 확대 적용되면서 신규 채용이 어려운 뿌리기업과 지방소재기업에 외국인력을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또, 근로시간 단축 과정에서 신규인력 채용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면 최대 월 120만원을 2년간 지원한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metroseoul.co.kr

한화호텔앤드리조트, F&B 사업 물적분할

신설법인 ‘더테이스터블’ 설립
“지속가능 F&B사업 다양하게 검토”



지난 1일 더테이스터블의 변성구 대표이사(오른쪽)와 직원들이 더테이스터블 출범식을 기념하고 있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F&B(식음료)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해 신설법인 더테이스터블 주식회사를 설립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더테이스터블 주식회사는 앞서 7월 1일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으로 독립경영체제에 돌입했다.

이번 분할은 지난 4월 아쿠아플라넷 분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식음 사업의 전문성을 갖춘 F&B 사업부문을 분리해 각 사업부문이 독립적으로 고유 사업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F&B 사업부문에 대한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가능케 함으로써 신사업 추진

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진행됐다”며 “코로나19 이후 점점 치열해지는 시장 경쟁과 변화하는 트렌드에 발맞춰 지속 가능한 F&B 사업을 다양하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더테이스터블은 국내 최고 수준의 외식 및 식음 브랜드로 63빌딩의 파인다이닝 레스토랑과 도원스타일, 티원 등의 독자적인 중식 브랜드와 골프장과 컨벤션센터 등의 식음 위탁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63다인킴 브랜드 런칭을 통해 프리미엄 밀키트 시장 개척에 힘쓰고 있다. 한편,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F&B 사업부문 물적 분할 이후 고유 레저사업의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원은미 기자 silverbeauty@

등의 현안 발생시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 분사를 통해 각 사업부문별로 지속성장을 위한 전문성과 사업경쟁력을 확보한다.

더테이스터블의 변성구 대표이사는 “이번 분사는 F&B 사업의 전문기업화

8월 경선 전 입당 vs 기조변경 없다

〈권영세〉

〈윤석열〉

윤석열, 국민의힘 입당여부 초미관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국민의힘 입당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최근 국민의힘 대선 주자부터 당 관계자까지 두루 만나면서다. 윤석열 전 총장은 최근 야권 대선 주자인 원희룡 제주지사과 장외 대권 주자 영입 임무를 총괄하는 권영세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장까지 만났다.

윤 전 총장은 지난 3일 오후 권영세 위원장과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만난 회동을 했다. 90분간 회동에서 두 사람은 야권 통합을 포함한 대선 정국, 국민의힘 입당 여부와 시기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만찬 회동에서 권 위원장은 윤 전 총장에게 국민의힘 조기 입당을 권유했다. 권 위원장은 회동이 끝난 후 기자들을 만나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제3지대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8월 (국민의힘 대선 주자) 경선 전까지 입당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윤 전 총장은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입당 여부에 확답하지 않았다. 윤 전 총장은 입당 시점에 관해 “당의 입장이나 상황도 제가 아는 것이 필요하고, 오늘은 일단 기본적인 입장을 서로 듣고 그런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당분간 국민의힘 바깥에서 정치·비정치권 인사와 만나고 현장 일정도 가지며 상황을 지켜보려는 의도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다만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 대선 주자와 접촉면을 빠르게 늘리고 있다.

앞서 원희룡 지사와 비공개 만찬 회동에서는 국민의힘 입당 논의를 진지하게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양측에 따르면 원 지사가 “정권 교체를 하려면 힘을 합쳐야 한다”며 “원팀”을 제안하자, 윤 전 총장은 “정권 교체와 야권 승리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홍 기자 pth7285@

온·오프라인 창업

↓ **창업비용 99만원**

200여개 흥삼브랜드 + 2만여개 인기상품

복지몰과 웹카다로그를 통해 남녀누구나 평생 판매 수익을 지속적 안정적으로 창출하는 사업

25년 역사 브레인TV 방송국 소유 핫터그룹

(주)핫터라이프 T. 070-7204-4515

‘해외유입 확진자’ 81명 올 최고치 기록

▶▶ 1면 ‘코로나 확진자 743명’서 계속

실제로, 주말 검사 결과가 반영되기 시작하는 토요일 하루 확진자 수가 700명을 초과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며 3차 유행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26일 이후 최고치다. 특히 해외유입 확진자는 81명으로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20~30대 코로나19 확산이 늘고 있는 것도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전일 신규 확진자 가운데 20대는 211명으로 전체 26.6%를 차지했다. 연령대 중 가장 많은 규모다. 30대 역시 138명(17.4%)로 20대와 30대 비중이 전체 44%를 차지하고 있다.

한주간 평균 확진자 수도 크게 늘어났다. 지난 한주간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하루 평균 698명을 기록했다. 특히 수도

권에서 지난 2일부터 3일 연속 5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며 주간 하루평균 546명을 기록했다. 새로운 거리두기 기준에는 3일 이상 신규 확진자가 500명 이상일 경우, 3단계 기준을 충족한다. 3단계는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며,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도 오후 10시로 현행 단계가 지속되게 된다.

정부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하향을 오는 7일까지 연기한 상태지만 이후에도 완화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새로운 거리 두기 3단계로 가는 것, 일주일간 연기를 시켰던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를 조금 더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체계개편을 연기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